

초점

한·일 해저 터널

동서고금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자기시대에 큰 업적을 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나 수에즈운하를 건설한 사람, 경부고속도로를 만든 사람 등 나름대로 역사에 남을 업적들을 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중 역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내고 싶은 마음에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지도자가 의욕이 넘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 욕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의욕까지 꺾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좁디 좁은 한반도 배를 갈라 뱃길 났 생각을 버리고 세계로 뻗어나갈 통로를 만들라고 제안하고 싶다.

대운하 건설 짐착 버리고 일·중·러 연결 올인하길

5000만 명도 안 되는 내수시장이 지고는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없다. 1억3000만 명의 일본을 내수시장으로 만들고, 2200만의 북한과 13억의 중국 그리고 1억4000만의 러시아를 내수시장으로 끌어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길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일 간에 해저터널을 뚫고, 북한을 경유하여 중국과 러시아로 통하는 육로와 철길을 개통시켜야 한다.

오는 7월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니 일본 총리에게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제안하길 바란다. 공사비용은 인구수와 국가 경제력 등을 감안하여 한국 1대 일본 3의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운하 건설에 대한 짐착은 버리고 한일 해저터널을 뚫고, 대륙과 연결되는 남북 고속도로와 철로를 개통시키는 데 몰입하여 글로벌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김문원·공주대 교수

朝鮮日報 2008年6月15日(木) A33面 焦点

「大運河建設の執着を捨て、日韓海底トンネルを掘れ」

キム・ムンウォン/広州大教授

古今東西の指導者たちは皆、自分の時代に大きな業績を残そうという欲が強い。万里の長城を築いた人やスエズ運河を建設した人、慶釜高速道路を作った人等、それなりに歴史に残る業績を残した人も同じだ。イ・ミョンパク（李明博）大統領も、在任中に歴史に残る大きな業績を残したい心で朝鮮半島大運河計画を立てたのだろう。指導者が意欲に溢れることは褒めるべきことであって悪く言うことではない。問題は多数の国民が反対することにある。だからといって仕事をしたがる大統領の意欲まで削ってはならない。その代案として、非常に狭い朝鮮半島の腹を割いて船道を作る考えを捨て、世界に伸びる道路を作れと提案したい。

5000万人にもならない内需市場をもってしては世界最強国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1億3000万人の日本を内需市場にし、2200万の北朝鮮と13億の中国、そして1億400万人のロシアを内需市場に引き入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まず道を開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ために日韓間に海底トンネルを掘り、北朝鮮を経由し中国とロシアに通じる陸路と鉄道を開通しなければならない。

来る7月、日本を訪問するというが日本の総理に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を提案することを願う。工事費用は人口の数と国家の経済力等を考え、韓国1対日本3の負担で推進するのが良いと思う。大運河建設に対する執着は捨て日韓海底トンネルを掘り、大陸と連結する南北高速道路と鉄道を開通させることに落ち着き、グローバル時代の偉大な指導者となることを願う。